

Submerged vs. Non-submerged Osseointegrated Dental Implant Prosthesis

양재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



연자 약력

1970년,
1979년~현재
현재

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교수
대한치과보철학회 부회장

치아결손시 인접치에 손상을 주지않고 인공치근을 이용해 저작, 발음, 심미성을 회복하기 위한 치과 임프란트 기술과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치의학의 꽃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. 1980년대 후반부터 Branemark, ITI, Core-Vent, Integral, Steri-Oss, 3i 등의 임프란트를 이용한 부분무치악과 완전 무치악의 외과적 기술 및 보철치료가 국내에서도 시술되어 정착되고 있다. 그러나 국내에서는 장기간의 임상적 연구가 부족하고 시술후의 peri-implantitis, 보철물 파절 등의 후처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.

완전 및 부분 무치악 치료에서 치과용 임프란트의 사용은 수복치과영역에서 중요한 치료방법이 되어 왔다. Submerged 골유착성 치과용 임프란트가 non-submerged type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수술을 두 번 시행해야 하고 fixture와 abutment간의 부적합 가능성과 같은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. non-submerged type 임프란트는 1회 수술만을 요하고 보철과정이 단순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는다. 여기에서는 submerged와 non-submerged 치과용 임프란트에 의한 부분무치악, 완전무치악, 단일치 결손 수복에 관한 외과적, 보철적 과정 및 5 - 8년간의 임상적 결과와 동물 실험결과에 관해 토론한다.